

광주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바라밀실버하우스' 건립...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빛고를 광주에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고)은 오는 2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바라밀실버하우스(관장 정미숙)'를 개원한다. 이 곳은 치매와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요양원과 복지관을 함께 설립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치료·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전문요양시설은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이면 입소할 수 있다. 정미숙 관장은 "노인성질환과 각종 장애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실비만 부담하고 입소해, 의료와 복지를 겸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바라밀실버하우스는 5435㎡(약 1647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식당을, 지상 1층에는 7개의 요양실과 상담실 물리치료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마련한다. 지하 2층에는 12개의 요양실과 간호사실, 휴게실, 의무실, 욕실 등이 들어선다.

바라밀실버하우스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 노인성 질환과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 의료



오는 2월 운영을 시작하는 바라밀실버하우스 조감도

서비스, 건강 유지관리와 심신 단련을 돕는 의료재활 서비스, 자기개발을 통한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여가 증진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사회조직 서비스 등이다.

바라밀실버하우스는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화나 홈페이지(www.gjw.or.kr/baramil)를 통해 자세한 입소 절차 및 생활여건 등을 상담할 수 있다. (062) 953-44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문화유산 알리기' 나선다

금강경독송회 책자 배포

미주나 유럽 등 해외에서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반세기 전의 한국전쟁과 분단국가, 급속한 경제성장 등 명암이 대비되는 이미지가 우리의 대표이미지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필까? 당연히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한국의 50대 문화유산>을 영문과 독어 불어판으로 9만부를 펴냈다. 팔만대장경 한글 운문 고대 천문학 석굴암 고려불화 등 문화유산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지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무료 배포된다. 금강경독송회는 또 금동반가사유상, 팔만대장경, 방짜유기, 무용 태평서곡 등을 담은 영상물도 각국의 언어로 제작해 무료 보급한다.

금강경독송회의 한국문화 알리기 불사는 3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간



금강경독송회가 한국문화 알리기 불사를 추진하며 영어·독어 등 외국 언어로 제작한 서적과 영상물.

<성종 이순신> <한국의 영원한 빛 세종대왕> <충 효 예> 등의 서적을, 외국 언어로 제작 20여 만부를 배포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책 배포와 함께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독후감 공모를 해 실질적인 '책읽기' 분위기를 조성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금강경독송회는 웹사이트(www.kscpp.net, www.koreanhero.net)를 통해서도 책의 내용들을 공개해 한국문화 알리기의 세계적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계룡산으로 氣충전하러 오세요"

이종철 화백, 정월대보름 맞이 달마도 전시·퍼포먼스 행사 개최

'氣가 넘치는 달마도'로 새해를 맞은 사람들에게 기를 넣어 주겠다는 화백이 있다. 석주 이종철 화백이다. 지난 20여 년간 달마도를 그려 온 이 화백은 대구 U-대회나 2002년 월드컵 등 지역과 국가의 큰 행사 때 마다 무료로 달마도를 그려 행사의 의미를 더해왔다.

지난해 11월, 화실을 겸한 전시공간이 있는 선화예술원을 개원한 이 화백이 내달 2월 2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21~23일 '2008 계룡산 기(氣) 축제'를 개최해 주목을 끈다. 선화예술원에서 열리는 계룡산 기축제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과 불자들에게 '기(氣)'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는 평소 '기가 차다' '기가 막하다' 등 생활 속에서 '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를 어떻게 보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기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기축제에 오셔서 기가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마도 화가 이종철 화백이 오는 2월 '계룡산 기축제'를 개최한다.

선화예술원 1층에는 필력 있고 기가 넘치는 달마도 작품들을 걸고 세로 6m, 가로 3m의 종이 위에 1.5kg의 대형 붓으로 '氣'자를 쓰는 퍼포먼스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화백이 직접 쓴 '氣'자를 나눠준다.

이 화백은 최근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달마도에 대해 경계하며 "불교계의 큰 어른이자 선종의 초조인 달마선사를 그린 달

마도가 흡수된 등에서 상품으로 취급받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그린 달마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받고 신심(信心)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달마도를 그리는 이유"라고 말한다.

또한 이 화백은 지금껏 그려온 달마도 65점을 묶어 다음 날 책으로 펴내는 한편 3월 중에는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철 충청지사장



1월 22일 열린 화엄사 성보박물관 기공식 모습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 '첫 삽'

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1월 22일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원로 의원 명선 스님과 주지 종삼 스님, 각 말씀 주지사님, 서기동구대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명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1500여년의 역사와 많은 성보 문화를 가지고 있는 화엄사에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할 성보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여러 대중들이 화엄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종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우리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장(場)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에 기공한 성보박물관은 국비지원으로 건축면적 771㎡(약 230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1층에는 수장고와 기계실이 지상 1층에는 전시실과 로비, 관리실 등이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불자들 지역발전 기원 '한마음'

군산불교사암연합회 조찬법회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재근)와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안근)는 1월 24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군산발전 조찬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스님들과 강봉균 국회의원, 김원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 각급 기관장 및 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재근 스님은 "불교는 예로부터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며 "우리 지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난국을 극복하자"

고 법문했다.

동국사 재운 스님은 운문선사의 법어 중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을 인용하며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김원주 도지사를 비롯해 자리를 함께한 기관장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회를 주관한 신도회 안근회장은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계기로 군산발전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석을 마련했다며 지역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동학사승가대 졸업식

창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은 1월 21일 제44회 졸업식을 열고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1일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운문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불타정각과 중생제도를 위해 모든 일에 신심과 성의를 다 하고, 만사에 근면하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법문했다.

한편, 동학사승가대학(학장 해주)은 1월 23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제45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29명 학인스님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곡사 주지 법운 스님과 동학사 前 학장 일초 스님, 대전비구구 청림회 회장 영을 스님 등 250여 명이 졸업식에 참석했다. 학장 해주 스님은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수행의 첫 걸음"이라며 "군건한 심신으로 부지런히 연구하는 스님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손법선 대구지사장·해철 충청지사장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받침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제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연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안스님, 서무선교사, 이지행교사, 김익순교사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문, 사물타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